

Chapter 02. **소식이야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지금, 이 순간
Now · Moment

COVID-19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

1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직원 편

-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서로를 위해 약속보다는 목례와 눈인사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은 물론이고 국내여행도 불안한 마음에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도 10년의 세월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오며 지금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병원의 미션에서도 보여지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활센터, 갑상선센터, 유방센터, 내과·내시경, 산부인과, 건강증진센터, 비타민면역센터 모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코호트 격리 조치를 경험했던 병원으로서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본원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철저한 방역 아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만, 비접촉·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재활 영역은 한걸음 한걸음이 더욱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중해진다고 해서 느려지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에 있어서 주체적 행동과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압니다. 입원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 낮 병동, 외래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상황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만, 서로 돕는 연대 속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울려 함께하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입니다.

재활팀 물리치료사
윤찬우



2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직원 편

• 어느덧 2021년의 세 번째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2년의 시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손 씻기와 위생에 관련하여 관심도가 높아지며 원하지 않지만 경조사를 간소화해야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5병동 멤버들은 2020년 2월 26일을 잊지 못 할 겁니다. 전날 타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참여자들을 병실로 이동시키며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날 병동 간호사들은 더블로 근무하였으며, 나이트는 퇴근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코로나 검사 시행 후 다음날 새벽 전원 음성결과를 듣고 상황이 잘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26일 5병동 멤버의 확진으로 인하여 5병동 코호트 격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이동 정보가 열람 가능하였고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뉴스며 안전문자에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 예민하고 이슈화되고 있던 시절이어서 타격도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코호트 격리로 14일 동안은 자택과 병원출근 외에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들과도 분리되도록 노력해야 했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식사와 수건을 따로 사용하고, 혹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도 적어서 ‘~카더라’ 라는 이야기에 쉽게 동요되었고 외출과 일상생활이 제한됨으로서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과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5병동 수선생님은 몇날 며칠을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뜯눈으로 서류 및 상황정리를 위해 고군분투 하였고 개인적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고, 그로 인해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5병동의 멤버들은 ‘코로나19 확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퍼진 바이러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였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수선생님께서 멤버들을 잘 이끌어주셔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수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마음을 모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설명하는 우리들에게 참여자와 보호자분들의 걱정 근심 가득한 가시 돋친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은 괜찮으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라는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며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참여자 보호자들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그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설명하는 우리들에게 참여자와 보호자분들의 걱정 근심 가득한 가시 돌친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선생님들은 괜찮으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라는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며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참여자 보호자들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그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도보와 자차로 출·퇴근할 수 있는 멤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정해주는 차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운전해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하고 위대하고 정신 상태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에, 분명 코로나19 음성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코호트 격리중인 14일 동안 간헐적 두통과 컨디션 저하, 기침, 발열 등의 신체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때!! 두둥~ 원장님께서 선물해주신 보쌈도시락과 비타민을 섭취하고 플라시보 효과인 듯 호전이 되었습니다. 백선미 원장님~ 원장님의 따뜻하시고 항상 저희를 생각해주는 넓고 크신 마음 덕에 5병동 멤버들은 힘든 상황에서 함께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전파의 초기라서 코로나19 확진병원으로 알려지며 경영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택시기사님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앞이요’라고 하면 위치를 잘 몰라서 늘 ‘중동 이마트 앞이요’라고 했었는데 코호트 격리 이후 ‘나눔과행복병원이요’라고 해도 ‘아~ 해운대에 있는 그 병원?’이라며 알아보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전환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 방역도 현재까지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으며 다른 병원과 차별성이 있고 발 빠른 대처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육박하는 현재, 앞으로도 우리는 ‘With 코로나19’로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모든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구성원들,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까지 모두 다 같이 잘 이겨내어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5병동 간호사
최고은



3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참여자(입원환자) 편

- SCI 사지마비 참여자분으로 참여자분이 원하셔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간호팀 안녕하세요~ 최부영님, 먼저 저희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부영 먼저 10주년이 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마흔살 최부영입니다. 제가 다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의 2년 전 즈음에 무주에 있는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순간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으며 목 골절로 경추 4-5번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119 차량을 타고 대전을지병원으로 이송되었을때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진주 경상대 병원으로 옮겨 수술하였고, 수술 후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지내었고 그 당시 제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큰 별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지나가는 간호사를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게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갈 때 즈음 욕창까지 더 심해진 상태였으나, 재활병원으로 전원하라는 말을 듣고 지칠대로 지친 상태로 걱정반 기대반으로 나눔과행복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간호팀 우리병원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최부영 대학병원에 비해 병실이 좁아 보여 약간의 답답함이 느껴졌으나 넓은 테라스와 옥상이 그런 단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병동 간호사들의 왤치 모를 파이팅이 정답게 느껴졌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병원이라 그런지 방역에 대해 꼼꼼하게 단속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간호팀 병원 입원기간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최부영 저는 경추환자다 보니 기침 능력 부족으로 목에 기관절개를 하고 있었는데 나눔과행복병원에 와서 호흡재활을 받게 되면서 목절개관(Tracheostomy tube)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거한지 3일째 되던 날, 물리치료 도중 객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왔고 급기야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장님, 간호팀장님, 수선생님 모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간신히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웃으며 하는 얘기지만 나행(나눔과행복병원)이 제 목숨을 살린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호팀 이것은 “나행이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게 있다면~

최부영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직무에 충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배려하는 마음은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팀 가장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요?

최부영 물론 어머니입니다. 사고가 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항상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해 주시고 새우잠을 청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곤 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은 커녕, 제 경솔한 행동으로 불효를 한 것 같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간호팀 참여자(환자) 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의료진은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시나요?

최부영 참여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바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병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말하면 적극적으로 나의 일같이 해결해 주시는 간호사도 없는 듯 합니다. 저한테는 나행의 간호사들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팀 퇴원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최부영 제가 사는 곳은 부산처럼 인프라가 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한 곳 한 곳, 문을 두들겨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간호팀 저희도 거주지 연계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병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부영 일취월장, 나날이, 꾸준히, 성실하게 발전할 겁니다.

간호팀 마지막으로 우리병원을 다른분께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최부영 당연히 있습니다. 저 또한 추천 받았구요~ 재활치료 잘하고 이동간사님 상주하고 계시고... 입원해서 겪고 보니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일상복귀 하시길 바라고, 꼭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답하시길 믿습니다. 저희 간호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日就月將

4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보호자 편

• 2020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를 녀석 때문에 우리 동네와 전 세계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소독제를 톼툼이 쓰고, 되도록 남과 만나지 않기... 우리는 끝을 모른채 뉴스 소식을 보며 계속 해내야만 했습니다.

같은 해에 저 개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언니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의식이란 것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인지에 좋다는 마사지를 톼툼이 해주고, 몸에 달아놓은 코 줄로 밥을 넘겨주고, 소변 줄로 소변을 받아 내고, 목의 관으로 마음대로 흘러나오는 가래를 석션하기... 저는 끝을 모른 채 검진 결과를 받아가며 계속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어느 남자가 마른 사막에 물을 계속 부어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누런 모래 사이로 싹이 트고 식물이 자란 것입니다.

나의 언니도 의식이 회복되고 입을 뽕뽕뽕거리며 자기 의사를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소변줄을 제거할 수 있었고 코 줄을 제거하고 입으로 죽을 먹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목의 관까지 제거하고 언니의 몸은 스스로의 기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백신패스 도입으로 조금씩 자유의 숨을 틔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결국 사막 땅에서 희망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끝을 모를 것 같았던 긴 터널이 결국 저 너머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탈출구가 있음을 보여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언니랑 걷기 연습을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한 채, 우리는 희망의 울창한 숲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김미란

807호 김민교님 보호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결국 사막 땅에서 희망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끝을 모를 것 같았던 긴 터널이

결국 저 너머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탈출구가 있음을 보여 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출입이 제한되고 환자의 케어에만 집중하기에도 바쁜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손발이 묶인 상황을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있냐’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현

808호 한봉주님 보호자

-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사실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감기 정도라는 것이 제가 느낀 첫 느낌일 것입니다.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편의 시설 이용 시 제약들로 인해 불편함이 조금 커진 정도랄까요?

그러다 2021년 2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닌 무척이나 성가시고 신경쓰이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출입이 제한되고 환자의 케어에만 집중하기에도 바쁜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손발이 묶인 상황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있냐’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떠들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자 급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말도 실감이 되었고, 면회 제한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아버지의 상태를 전화로라도 확인하려다 혹여 의료진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만 끙끙거리며 네거티브한 생각만 하던 시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커져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걱정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쾌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의 면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이종으로 인한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있어 가족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동기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보호자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팬데믹 하에서도 환자와 보호자 간의 접촉점을 제공할 메서드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또 다시 누군가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활동이 멈춤으로써 하늘이 맑아지고 동식물들이

자유로워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모두 환경에 무심했던 것에 반성을 하고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나영

820호 김만학님 보호자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후 변이 바이러스까지 일으키면서 현재까지도 전 인류가 코로나19와 투쟁중입니다.

자유로이 활동하던 동적인 행동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재택근무와 배달 문화와 같이 비대면으로 행해지는 사회 현상들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많은 규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책과 국민들의 협조로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잘 대처하여 방역 모범 국가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교육의 격차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관·공업에 손실을 주는 등 수 많은 피해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에서 외출 제한과 면회의 제한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가족과 장기간 만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는 우울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시킨 부정적인 현상 속에는 환경에 대한 경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멈춤으로써 하늘이 맑아지고 동·식물들이 자유로워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모두 환경에 무심했던 것에 반성을 하고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 알약 형태의 먹는 치료제가 임상 실험 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



‘너는 그림을 그릴 재능이 없어’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면 반드시 계속 그려라.
그러면 그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

If you hear a voice within you say ‘you cannot paint’
then by all means paint, and that voice will be silenced.

／
빈센트 반 고흐





재활센터 이야기 01 • 진료부

결코 가볍지 않은 _____ 10년의 세월동안

▼ 김태형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 어느덧 우리 병원이 설립된 지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산에서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노력해온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학병원이나 재활병원들이 비교적 중·서부권에 몰려있어 동부산권에서는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재활치료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의료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던 병원은 원장님, 의료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노력 하에 매년 더 큰 규모로 성장해왔으며, 실제로 환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재활부문에서 타 병원이 부러워 할만한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뇌병변, 척수손상의 치료실을 분리하여 각 분야에 맞추어 치료동선을 정리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가 연속적이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독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팀은 끊임없는 외·내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간호사정 이외에도 중추신경계손상 환자들의 장·방광케어, 호흡, 영양, 욕창관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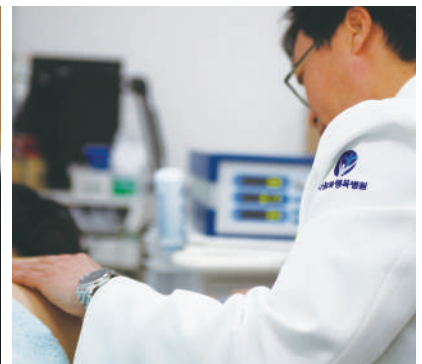
//

부산에서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노력해온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활의학과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원적 팀접근법(Team approach)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입원 환자 한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팀원이 모여 입원 초기와 퇴원 준비기에 모여 각각의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치료 컨퍼런스, 척수손상 신환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치료에서 통합계획관리 컨퍼런스로 좀 더 정례화된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병원이 재활병원으로서 꾸준히 성장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회복이며,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팀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세부분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의학정보와 학술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지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시스템과 원활한 의사결정 체계와 만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부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활센터 이야기 02 • 참여자

기억 속 그리고 지금도 _____ 함께하는 참여자

▼ 이보나 병동 참여자 윤종화님의 보호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잘 오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에
긴장했던 마음이 놓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 2016년 7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에 간다고 나간 사람이 오지 않아서 6시 30분 경에 전화를 했더니 119대원이 전화를 받았습니 다. 그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 다. 119대원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 이라고 했습니 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 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중환씨는 의식이 없었고, CT을 찍 으니 뇌출혈이 있다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 다. 우리는 엠블런스를 타고 개금에 위치한 백병원으로 갔습니 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CT를 찍었는데, 뇌출혈 그리고 목에 골절이 보인다고 했습니 다. 다시 정밀검사를 하니 의사선생님 께서 목골절이 심하니 당장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습니 다.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 처치하는 과정 은 상상조차 하기 무서웠습니 다. 기관지를 열어서 산소호흡기 를 넣기 위해 입 속에다 급속장치를 넣는데, 입은 열리지 않 고 입 속이 다 터져서 피는 계속 나오고, 링거를 꼽으면서 피 는 범벅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의식이 없고,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 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고 TV 속 드라마 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 다.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가 없었습니 다. 의사선생님께서 넘어지면서 목골절이 심하게 되어 뼈가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전신마비가 될 수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 셧습니 다.

응급실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밤 12시 30분에 수술실 로 들어갔습니 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그냥 멍했습니 다. 그렇지만 수술 도중에 잘못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절 실히 기도했습니 다. 새벽 6시 30분에 수술실에서 나와 중 환자실로 들어갔습니 다.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본 중환씨 는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모 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 다. 입 속에는 인공호흡기를, 팔과 가슴에는 셀 수 없는 링거 줄들, 알 수 없는 기계소리 들, 본인이 깨어나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섭고 힘들고 아 플까, 아... 엄청난 일을 말로다 표현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 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 다. 혼 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라는 병명을 가 지고 불안한 마음과 참담한 마음으로 해운대니눔과행복병원에 오게 되었습니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잘 오셨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에 긴장했던 마음이 놓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 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 고 눈물이 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목에다 딸랑이 방울 팔찌를 만들어 끼워 주셨습니다. 약간의 손목 움직임으로 방울 소리로 내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병동에서 호흡 치료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말문이 터졌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같은 병실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가족같이 생활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많은 힘이 되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 작업치료 선생님들의 꾸준한 치료 덕분에 팔에 조금씩 힘이 생기고 팔 각도에 맞추어서 손가락을 만들고 보조기를 만들어서 끼워주면 서툴지만 혼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사업팀 선생님들도 수시로 병실로 오셔서 도와 줄 것이 없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어느덧 병원에서의 생활이 2년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이라는 말을 듣고 또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고, 집으로 돌아간 후의 생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소개로 집 수리를 종화씨에 맞추어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현관에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끔 집안에 모든 턱들을 없애고 수리를 하면서,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해야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편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자택으로 가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그동안 종화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은 많지만, 몇 분이라도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도 가고 마트구경도 가고 온천천 산책도 다니고 동네 한바퀴도 같이 다닙니다. 사고가 난 이후로 이런 생활들을 할 수 없을지 알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남편 종화씨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나눔과행복병원 의사선생님,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치료실 선생님들, 사회사업팀 선생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두 분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 벌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항상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참여자 님과 보호자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윤종화님 부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사지마비가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여자에게 언제나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웃는 모습과 씩씩한 모습으로 힘든 병원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무리 남편이고 가족일지라도 하기 힘든 행동이라 저조차도 존경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8년...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두 분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년을 같이 병원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병동을 책임지는 수간호사로서 입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유독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 또한 걱정으로 퇴원을 연장해 드리고 싶었고, 좀 더 재활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 뿐이었습니다.

퇴원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택 수리와 함께 전동차를 신청하고 치료팀에서 리프트 교육을 받으면서 차츰 용기를 내시는 모습을

보았고, 병동 간호사들도 퇴원을 아쉬워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참여자를 담당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 얼마되지 않아 자택 방문을 통해 두 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음에 안도했고, 보호자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들과 수육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ㅎㅎ

얼마 전에 외래 방문을 했을 때 멋진 전동차를 타고 혼자 운전하시면서 진료실 방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보호자님의 노고와 참여자 님의 노력이 보여 살짝 눈물이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에게 더 이상의 슬픔은 없고 여느 부부처럼 사랑싸움도 하고 지금처럼 온천 산책도 가고 마트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으러 다니고 좀 더 재미나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7병동 간호사들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7병동 수간호사
박희진



하루가 쌓이고 계절이 쌓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 손정민 유방·갑상선센터 센터장

- 오늘 아침에도 출근 후 커피 한잔을 기다리며, 유방·갑상선센터 한 쪽 벽면에 새겨진 글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건강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병원, 조직에서는 그 서비스 대상인 고객, 즉 사람을 위하여는 동기가 앞서게 마련입니다. 유방·갑상선센터 벽에 걸린 ‘사람을 봅니다’라는 문구 역시 그런 동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구요.

우리 병원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줄의 글귀는 각 부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지만, 유방·갑상선센터 내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성어린 진료와 검사, 따뜻한 마음들이 고객들에게 전해져, 현재는 다시 오고 싶은 병원, 친구나 가족 또한 함께 진료 받고 싶은 병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 병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점들의 연결점에는 유방·갑상선센터의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유방·갑상선 분야의 전문의들이 진료와 함께 검사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진정한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에 대한 모색으로 유방·갑상선 분야에서 이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속한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억이란 지나간 시간의 기억으로,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야기겠죠. 아마 5년 전 쯤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처음 근무할 당시만 해도 유방·갑상선센터엔 세 명의 전문의들로만 구성되었고,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준비하던 시기였던걸로 기억



합니다. 10년의 흐름에서 절반의 흐름이었
 죠. 하지만 그 절반만큼의 흐름이 더 지난
 지금은 5명의 유방·갑상선 영상전문자들
 이 근무하며 그 동안의 몇 차례의 리모델링
 과 지속적인 첨단 진단기기의 도입으로 명
 실공히 최고의 유방·갑상선센터가 되었다
 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지만 고객에 대
 한 우리의 하루가 쌓이고, 계절이 쌓이
 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는 동안 어
 느새 유방·갑상선센터는 의사가 소개
 하는 병원, 3차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병원, 대학병원과 함께 논문 등의 연구
 를 계속해나가는 병원, 학회 지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지역중추병원 등의
 수식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특정 병원이 아닌,
 어제의 우리 병원 일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특정 병원이 아닌, 어제의 우리 병원일 것입니다. 어제보
 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노력이 또 한
 번의 10년의 세월로 쌓인다면, 그땐 부산·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20주년을 향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딛어야겠다
 는 다짐을 해봅니다.

내일 아침에도 출근 후 커피 한잔을 기다리며, 유방·갑상선센터 한쪽 벽면에 새겨
 진 글귀를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봅니다.' 📍



통합센터 이야기 01 • 진료과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 **천재홍** 내과 진료과장

• 제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곳에서 근무하며 좋았다고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첫째, 나눔과행복병원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입니다. 병원이 이윤의 극대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떤 병원은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경영진의 지나친 성과 위주 평가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여 의료진들의 진료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나눔과행복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은, 단 한 번도 병원으로부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의 경영 철학에는 언제나 환자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 최우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 중 한 명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병원을 찾았을 때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되어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나눔과행복병원은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덕분에 저도 환자분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이라면 어떤 검사를 받게 하고 어떤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료 재량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의료진의 직업적인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둘째, 나눔과행복병원은 동료들 간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적지 않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직장의 구성원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나눔과행복병원의 동료들과 저는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또, 우리 병원에는 남다른 재주, 자기 개발 의지, 좋은 성품을 지닌 분들이 많아 이런 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며 내적 도전을 받고 서로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과행복병원은 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고객들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저는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지만, 고객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는 저에게 덕담을 해주시고 가시거나 진료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시는 고객분들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얻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우리 병원을 내원해 주신 분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넷째, 나눔과행복병원은 진료 과정 자체에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진료 종료 후, 환자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속해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병원의 재활팀이나 갑상선·유방 센터는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센터의 진료 목표는 단순히 참여자분으로 하여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제1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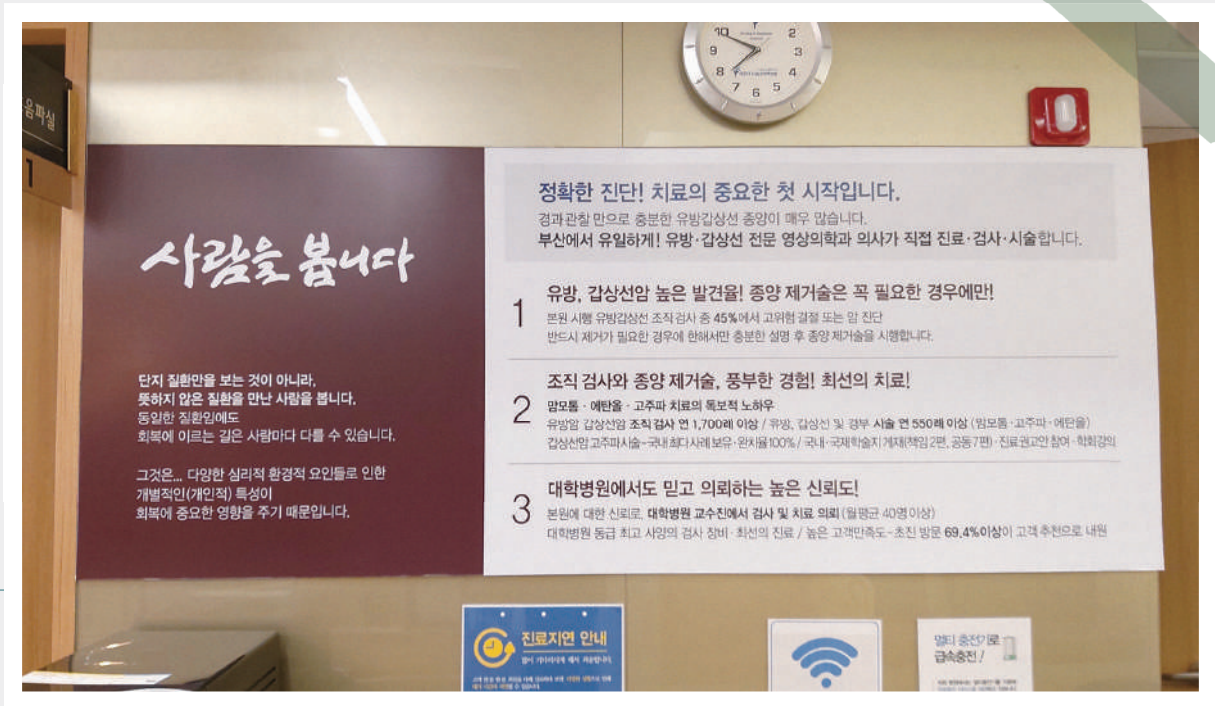
어떤 동작을 해내게 하여 그분의 가동범위가 늘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참여자분들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퇴원 이후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고민을 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도 국내 유수의 병원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치료기술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치료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받은 고객이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 병원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제1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처럼 나눔과행복병원은 환자를 대할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듯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는 병원,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병원, 이런 나눔과행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진짜로 과잉진료하지 않고 꼭,

▼ 이유순 유방·갑상선 외래고객



• 저는 오랜기간 강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연고지가 강서구이고 직장검진할 때마다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걱정없이 검사를 해야되는 연령대이기도 해서 2021년 3월 인근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후 유방에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맘모톨로 제거해야 된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직검사를 하라는 건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걸 오랜 보건소 직장생활로 알고 있던 터라, 혹이나 '암이면 어찌지'하는 걱정에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수영구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전 직장 동료였던 선생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진료를 보셨고, 현재 초음파만 추적검사중이라는 얘기와 함께 이 병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강서구에서 해운대까지 오려면 1시간 30분이 걸리는 가깝지 않은 거리였고, 대학병원도 아니고 해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던지라 일단 '한번 진료를 봐보자'하고 4월 말 예약을 하고 내원했습니다. 병원 안에 들어와 보니 병원 냄새가 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와 깨끗한 환경에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검사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약 환자가 많다보니 예약시간보다 조금 기다리기는 했지만, 진료 후 결과가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괜찮은 결절이라는 설명과 6개월 뒤 초음파로 모양이나 크기 변화를 보자는 말씀에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6개월 주기로 두 번 추적검사를 했고, 현재는 모양이나 크기 변화가 없어서 1년 뒤에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병원을 오지 않고 그냥 맘모툼 시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진료하시는 과장님도 여자 과장님이라서 너무 좋았고, 영상을 전문으로 보시는 영상전문의 선생님들이라 더 믿음이 생겼고, 환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현재는 모양이나 크기 변화가 없어서
1년 뒤에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병원을 오지 않고
그냥 맘모툼 시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서 둘러보니 벽에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정직한 진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문구입니다. 환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검사는 다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게 필요한가 싶어도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있으니 진짜로 과잉진료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지 않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한분 한분 더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강서구에 이런 병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부산 안에 이렇게 믿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겸비한

▼ 석경수 내과 외래고객



• 집과 가까운 곳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먼 곳에 있는 병원을 다니던 저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 곳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 쾌적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된 내부가 눈길을 끌었으며, 접수를 위해 제일 먼저 들렀던 원무과에서는 직원 분이 초진 환자인 저를 위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를 잘 해 주셨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모든 의료진들이 보여주신 친절한 태도는 어느 다른 병원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보이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이 느껴지는 친절이었지요.

소화기 내과 천재홍 과장님께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 과장님은 제게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은 설명을 요구하면 어려운 의학용어를 써가며 이해할 수 없게 장황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제가 설명하면 알아듣기는 하세요?'라는 생각에서 병변 부위와 시술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정도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곳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만난 천재홍 과장님은 이전에 만났던 어느 의사 선생님들과는 달랐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만나다


몇 번의 진료 후, 과장님과 어느 정도의 래포가 형성되었을 때, 저는 허약한 체질로 인한 어지러움 때문에 수면 마취에 어려움이 있어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의 아내 이야기를 과장님께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마취 사고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선뜻 저의 아내에게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과장님은 저의 아내와 같은 경우라도 진정 과정을 찬찬히 지켜보면서 검사를 진행해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도 나눔과행복병원에 내원하여 진정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검사 중 발견된 용종 하나를 제거하는 시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이었다고 하시며 아내에게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모두 진정내시경이 안된다고 하여 받지 못했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 곳에서 받고 아내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고,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과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는 '어딘가 아파서' 혹은 '어딘가 아플지도 몰라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내원을 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이 취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어찌 보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하지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제가 만났던 의료진들처럼 환자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다독여 준다면 환자들은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이미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60여 년을 살아오다 보니 '사람의 일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간 저의 인생에서 직장 생활,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교제를 통해 누렸던 만남의 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내가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친절한 의료진이 있는 곳,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통해 행복을 느꼈으니 이제 이 행복을 주변의 지인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을 찾고자 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양팀의 하루 세 번,
치료를 위한

작은 기적을 만드는 곳

새벽 5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 9층 조리실은 불이 켜지고
오늘도 만들어질 작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 영양팀은 4명의 영양사와 5명의 조리사, 13명의 조리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2명의 구성원들이 매일 하루 세 번, 200여명의 입원 참여자(환자)들과 370여명의 재직자들에게食이 주는 즐거움과 균형 잡힌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양지도와 식수관리, 식품의 발주, 조리 지도 등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도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제반준비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병원밥은 맛이 없다.'라는 생각은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 인식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병원이 차별화를 외치지만 1년 365일 반복되는 영양식단에 동일화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과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결과로 증명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먹거리의 차원을 넘어서 영양의학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환자)분들은 대개 아프기 전보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흡수작용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입원 생활이 오래될수록 편식이나 고른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각 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진대사의 이상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원은 개원 초기부터 이러한 영양의학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료의 한 파트로 받아들여 영양팀을 일반 행정부 소속이 아닌 진료지원부서로 편입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

그 결과 본원이 제공하는 하루 세 번의 식단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그 자체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함께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진 작은 기적이 되어 참여자(환자)분들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원 영양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점이 옮겨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가 당연히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양팀이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영양사들은 하나하나의 식단에 국내외의 다양한 조리 정보와 영양학 정보를 담아 치료의 버팀목이 되는 완벽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편성합니다. 경험이 많은 조리사와 조리원들은 영양사들이 구성한 식단표의 음식들이 제 맛이 날 수 있도록 손맛을 더하며 정말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단순히 만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잔반량을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설문 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여 평가하는 등,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메뉴 개발과 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우리 병원에 처음 입원한 참여자(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느 병원 식사와는 다른 수준의 맛과 퀄리티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이는 치료의 한 파트!」라는 자존심과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생기는 자신감은 하루 종일 바쁜 영양팀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식자재의 선택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올하는 자연드림으로부터 일반 소금보다 5~6배는 비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깊은바다소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건강한 식자재의 선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영양팀에서 중요한 일은 고객을 중시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영양팀에서는 차별화된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는 병동을 제외하면 병원의 하루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늦게 마무리 하는 팀.

하루 세 번,
이 영양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의 즐거움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책임,

영양팀 급식의 특징!

1

안전한 먹거리

기본 식재인 쌀, 김치는 모두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김치는 배추, 고춧가루, 천일염 등 재료도 국산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식재들도 가급적 국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HACCP 관리를 하고 있는 공신력 업체를 선정하여 식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연드림과 협약체결 후에는 저플라스틱 소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문적인 조리 공정과 위생관리

영양사가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발주하면, 조리사는 메뉴에 맞게 식재를 준비하여 조리합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식재 준비 및 조리 시 주의할 사항을 확인하여, 맛있게 조리하고, 보기 좋게 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주 메뉴를 사전에 확인하고, 새로운 메뉴는 시험조리를 통해 조리 숙련도를 향상시킵니다. 매월 2시간씩 식자재 관리, 조리공정, 환경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급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별한 조리과정의 대표적인 예

차슈보쌈 | 삼겹살을 덩어리째 삶은 뒤 기름에 굽고, 소스에 다시 졸이는 조리과정이 복잡한 음식. 고기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하며 팔각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고 기름진 맛이어서 비트로 물들인 새콤한 양파장아찌와 함께 먹으면 꿀맛



돼지국밥 | 2~3일 전부터 뼈 핏물을 제거하고 끓이면 우유같이 뽀얀 국물이 됨. 여기에 삼겹살과, 순대, 오소리감투와 내장을 넣으면 시중에 파는 돼지국밥보다 더 맛있음



수제탕수육 | 이전에는 냉동탕수육을 사용했으나, 돼지고기를 직접 반죽해서 수제로 튀기고 있음. 조리가 힘든 부분이 있으나, 조리사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맛도 훨씬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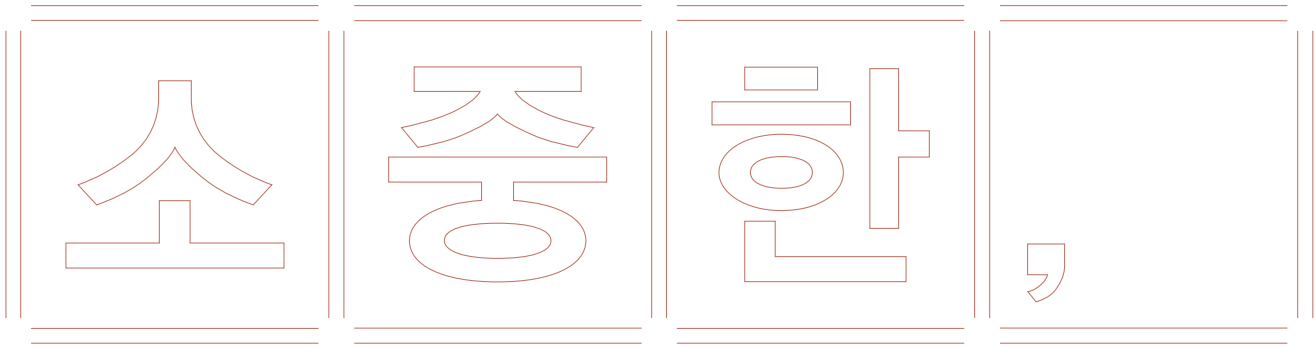


물김치와 백김치 | 김치 종류는 제품을 구입했으나, 식사를 잘 못하는 죽이나 갈음 다짐 참여자들을 위해 물김치와 백김치를 직접 담았음. 시판되는 제품보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서 매우 좋아하심



유부초밥 | 사각유부에 밥을 채우고, 참치김치볶음, 계란, 맛살오이샐러드를 곁들여 얹은 유부초밥. 맛도 있지만 보기도 예뻐, 영양사, 조리사 모두 함께 만들어야 하는 손이 많이 필요한 음식 🍴





▼ **윤경옥** 관리기획팀

-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출근을 합니다. 바뀌지 않은 건널목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 병원을 바라봅니다. 벌써 우리 병원이 10주년이라니... 그 시간들을 함께 했다는 생각에 지나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출근하여 환의를 정리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속들을 만들며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낸 나날들이 벌써 9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지만 지금도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원장님의 개원 이념대로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이념대로 수많은 봉사자 참여자님들의 치료와 환경 개선에 힘쓰시고 애쓰신 결과가 오늘의 우리 나눔과행복병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능력의 의료진, 친절한 직원들, 모두가 함께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나의 일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병원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행복과 기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넘어 더~ 발전하는 우리 병원의 미래를 볼 때 더욱 더 기대되는건 저만이 아니겠지요?

저 또한 우리 나눔과행복병원의 일원임을 잊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해나가겠습니다.

1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병원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나눔과행복 화이팅!!

▼ 최희정 관리기획팀

- ‘첫’, ‘처음’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해보지 않았기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이 주는 설렘이 좋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우리 병원을 알게 된 건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후 였습니다. 집안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걸으실 수도 없고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날이 호전되어 가는 아버지를 보며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참 고마운 곳입니다.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에 입사를 하던 날 참 많이 설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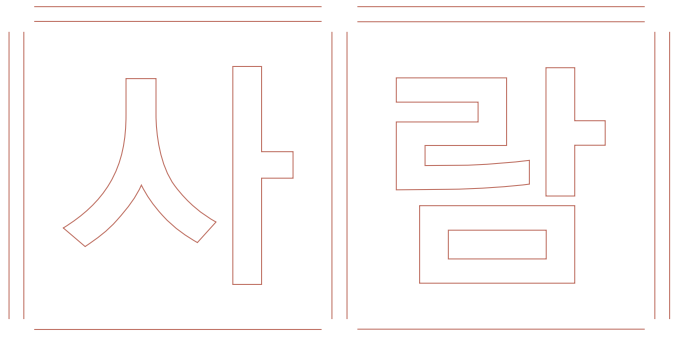
병원 입구에 들어서 가장 먼저 본 말이 ‘사람을 봅니다’였습니다.

참 많은 뜻이 담긴 말이였습니다. 원장님과 첫 인사때 밝게 웃으시던 모습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사람을 봅니다’라는 말이 생각나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병원을 청소하며 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에 환한 미소로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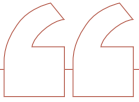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우리 병원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처럼, 어두운 새벽 병원을 환하게 밝히는 전등불을 켜놓겠습니다.

개원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성철성 간호팀

- 먼저 우리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으로서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지난 날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관심과 헌신이 있어 지금의 우리 병원이 있음에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2016년도에 우리 병원에 입사하여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웃으면서 참여자 분들과 직원 분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어느새 적응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분들과의 이동에서 말없이 웃으며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모습에 반하여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자 분들의 이동을 도울 때 마다 감사하다며 인사해 주시는 말씀들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울컥한 적도 많았습니다.

5층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던 저에게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함과 배려 속에

참여자 분들의 많은 부분을 알아가며 지내온 날들이

이제는 어느덧 6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지나가던 날들 중, 갑작스럽게 코호트 격리라는 조치가 취해지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13박 14일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단절과 이동의 제한으로 수많은 난관에 처했지만, 병실에서만 지내야 하는 악 조건 속에서도 참여자 분들과 제한된 운동이라도 진행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고 그 분들과의 대화 속에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코호트 격리 중에도 재활지원 인력 여사님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참여자 분들에게 정성껏 케어를 제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병동지원인력과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소통하고 협력으로 보듬어 가는 병원을 만들고자 서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직원들이 힘들까 지칠까 염려하시고 정신적으로 독려를 해주시며,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병원을 만들고자 이끌어 주셨던 백선미 병원장님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나눔과행복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을 내 가족같이 대하여 그 분들의 내적 성장과 행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하며, 고객의 의미를 넘어, 직장동료라는 의미를 넘어, 가족같이 생각하며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과 함께하겠습니다.



▼ 김영태 영양보호사

- 10주년 기념~~ 와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5병동에서 영양보호사로 근무한지 3년이 지나 4년째에 접어듭니다. 용역업체에서 본원 직원으로 되고, 직원으로서 병원 10주년 개원 일을 축하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일도 많은 상황이고 일상은 너무나 지루하지만, 그 속에서 바쁘고 힘든 일엔 서로의 일을 가리지 않으며 하하호호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시는 동료 여사님들 덕분에 무리없이 원활하게 병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모여 맘껏 수다 떨고 근교라도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니던 그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감사한 날들이었던 걸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참여자 분들을 간병하며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의 인사로 음료수 하나를 조용히 내미시며 누가 볼세라 눈 깜빡이며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시는 정 많은 참여자 분들, 그 음료수 하나도 그 분들 만큼 귀하다는걸 압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분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더 알기에 마음이 찡할 때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간병사를 무시하는 참여자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속상하고 힘빠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이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사님들은 참여자 분들과 함께 한결같이 즐겁고 힘차게 파이팅 할 것입니다. 참여자 분들이 재활치료를 잘 받아 일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좋은 뜻을 품은 원장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소

중

한

사

람

암 극복
복직이야기

기다려주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 윤선화 간호팀 5병동

• 5병동에 2014년 신규 입사하여 공동간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탈바꿈하고, 환경 좋고, 시설 멋진 리모델링 변화, 발전하는 모습에 뿌듯해 하며, 새로운 마음다짐을 하고, 저의 몸도 직장인 검진을 통해 점검 차 했는데... 위 내 시경 검사상 충격적인 위암 소식에... 설마 내가? 탄식만 하기엔 너무도 젊은나 이라.. 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 생각하고, 오르막길에서 잠시 쉬어가자~ 위 암 수술을 결단하고, 가족이 있기에, 또 나보다 더 힘겹게 재활하시는 분들 보면서, 쉽지 않은 시간 힘을 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라 일체 면회 안되고, 전대미문의 상황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더 힘들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조직의 위로와 힘은 평탄한 길과, 내리막길까지 혼자 가면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하는 힘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한 시간들~ 내 손과 발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행복병원의 아름다운 리모델링과 함께하신 보이지 않는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내 몸도 리모델링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응원해주며, 기다려주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Cancer.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버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생각으로 백지 위에 하루하루 다시 쓰는 인생. 매일의 일상이 다이나믹하고, 신환을 맞이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정들었던 참여자 분들의 퇴원을 보면서 나혼자 행복한 삶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찐~ 행복을 느끼며 감사로 채우는 날들입니다.

아침에 눈뜨면 새 날 주심에 감사, 건강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내 방 청소하듯 구석구석 말끔히 정돈된 환경, 가족을 모시듯 참여자 분들의 희망이 되신 모든 의료진들 여러분들과 하나 된 이곳이 참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 못할 시련일지라도, 그 아픔 속에 또 다른 깨달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참여자 분들의 육체적 아픔에 플러스된 소통 부재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동료들 중 저를 보고 여러 번 놀랐다고 꼭 전해달라는 몇 마디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첫번째, 여러여리한데 은근 풍기는 카리스마

두번째, 찬 듯 냉정해 보이는 '까도녀'같은데 세심히 챙겨주는 정 많은 여자

마지막으로 미처 전하지 못한 분들께 인사드리며, 기다려주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반겨주신 5병동 식구들 수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7년 간 또 하나의 가족들임에 나눔과행복 가족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음에 찐 감사로 마무리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동에서 기다리는 마음,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글 | 5병동 선생님들

우리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 한 분 우리 윤선화 선생님. 6년 이상을 함께해도 변함없는 분, 예쁘고 예의있고 따뜻하고 저한테는 그런 복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선생님의 위암 진단소식...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정말 건강을 위해 검진을 한 것이었기에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라서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되요."라며 무덤덤하게 말했던 모습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네요. 다만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며... 모든 이들이 바랐던 건 선생님의 쾌차의 기적뿐이었습니다. 착한 이에게 깜빡이도 없이 들어온 병이기에 그냥 스치고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힘든 수술 잘 끝내고 회복 정말 잘 되시길~ 그리고 욕심 같아선 정말 다시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는 맘이 컸습니다.

다행히 모두의 바람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수술도 잘되고 무사히 회복되어 병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현재 선화선생님께서 힘든 내색 한번없이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